

4.7 e-생물산업

학회 소식지는 새로운 학술정보와 학회 및 회원들의 소식을 알리는 잡지로서 회원들의 눈과 입, 귀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매체이다. 우리 학회 소식지는 '학회소식'의 이름으로 1988년 6월 단국대 산업미술과 방재기 교수가 디자인한 '생물세포를 통해 서로 대화'하는 형상의 표지 디자인으로 창간되었으며, 연 6회(격월) 발간을 하였다. 1991년 4권이 발간될 때부터 '생물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이때 표지의 글씨는 서예가 정하건(아호: 松泉) 선생의 휘호로 제작되었다. 학술지 형태와 유사했던 디자인은 1996년 9권에서부터 새로운 디자인의 채택과 함께 영문 제호 또한 'Bioindustry'에서 소식지로서의 특성을 부각시킨 'Bioindustry News'로 바뀌었다(그림 6).

외형적인 변화와 함께 소식지는 본 학회의 회무사항, 예·결산서, 회칙, 학술발표 안내, 회원 및 임원명단 등의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학회의 전반적 동정을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다. 또한 동종 산업계 소식과 최신 기술에 대한 논문을 실어 최신 연구와 연구지원 정보의 전달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바이오 연구동향' 및 '학회참관기' 등은 회원들 간의 최신정보공유의 장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03년부터는 "e-생물산업"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어 온라인 출판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 5월호부터 리뉴얼된 e-생물산업 웹진을 발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연 4회(계간) 발간을 하고 있으며, 학회 소식 및 공지사항, 자유기고, 국내외 학술대회 안내, 신진 과학자 소개, KMB 우수 논문, 실험실 탐방, 국내 바이오 기업 및 기관 소개, BIO-Tools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아 이메일로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학회 웹사이트(<http://www.e-bioindustry.or.kr>)를 통해서도 "e-생물산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소식지 표지의 변천 과정